

# K3리그 승격 위한 교두보 확보

전주시민축구단, 상위권 진입 위해 평창 상대로 이겨야... 내일 평창유나이티드와 홈경기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홈경기 승리로 K3리그 승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19일 전주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14라운드 평창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승점 18점(5승 3무 4패)으로 6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평창을 상대로 승리해야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K4리그에서 최다 득점(26골)을 기록

하고 있는 전주는 실점 또한 21골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날 승리를 위해 수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 중이다. 이에 전주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 수비를 강화하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공격에서는 김도형과 김종진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중원에서는 안태렬과 신유호, 용환빈, 박광윤이 상대

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이요셉, 여인혁, 이주성이 상대의 공격을 막고, 주장 김태연이 무실점으로 골문을 지키고, 양영철 감독은 "홈경기인 만큼 선수들과 함께 꼭 승리를 거둬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이 홈경기 승리로 K3리그 승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전주시민축구단은 21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14라운드 평창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구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익산종합운동장서 24~26일 실업육상·전국대학선수권

익산시에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Amazing 익산 2022 KIFL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 대회' 제 77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육상연맹과 한국대학육상연맹 주최, 전라북도육상연맹과 익산시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전라북도도와 익산시가 후원한다. 남자부, 여자부 각각 23종목 및 남녀혼성틸레이 1종목 등 전체 4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700여명(실업450, 대학250)의 선수를 포함한 1,200여명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현장 관람할 수 있으며 '아이티21'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또한, 오는 8월에도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 대회의 마지막인 5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이은 전국규모 대회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도내 대학 스포츠 재능기부 '활발'

호원대 씨름부, 전주 온빛초서... 군산대 탁구부, 도내 중학교 찾아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산)는 도내 대학 및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들이 학교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최근 호원대 씨름부 선수들은 전주 온빛초등학교에서 원포인트 교육과 실기시범, 소양 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씨름이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군산대 탁구부도 유소년 및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탁구를 지도하기도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캠프와 레슬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평을 필아정 선수단이 지난 14일 익산시 황등면 건덕정에서 열린 '2022 익산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남녀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내 최대 규모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시설

지리산 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 내일부터 정식 개장

남원시는 4월 20일부터 한달간의 시험운영과 무료체험행사를 마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시설인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을 오는 21일부터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무료체험 기간 무려 2,500여명의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을 이용했으며, 이용객 중 청소년과 어린이가 고객이 절반가량 차지할 만큼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은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남원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허브밸리 내 위치한 스카이트레일은 지상 3층 높이(최대높이 14.25m)의 오각형 형태의 타워로 63개 장애물 코스를 완수하는 모험 레포츠이다. 다양한 코스 중에서도 지상 3층 높이에서 지상 2층으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질라인이 인기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무섭지만 짜릿한 스릴을 즐기고 싶은 젊은층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단력 쌓기와 건전한 신체활동에 제격인 지리산허브밸리 스카이트레일은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활동 코스로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허브밸리 상단부 철쭉군락지와 지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과 허브밸리 내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무개도열차 등 관광시설 구축이 완료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스카이트레일의 이용가격은 성인 기준 2만원이지만, 개장기념으로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남원시민의 경우 1만원으로 추가할인이 적용되고, 이용예약 및 문의는(063-636-3334)로 하면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서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 1차 개최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전북 순창군에서 제57회 전국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1차)가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테니스협회(회장 정회균)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순창군이 후원한다. 선수권 대회는 1차(10세부, 12세부), 2차(14세부, 16세부, 18세부)로 2차례에 걸쳐 연명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주니어테니스 선수 중 10세, 12세이며 400여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단식은 예선 토너먼트 후 본선 토너먼트(64드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식은 예선 없이 8게임 노애드 1세트 경기로 치러진다. 우승자는 트로피와 함께 국제대회 파견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세계의 우수한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다. 양은옥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의회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옥정호 봉어섬(외안섬)

천당구담마을

관촌 사선대

**임실군의의회**